

지역 유교문화역사의 증거물

장수 장안산서 조선 금석문 발견

장수군 계남면 장안산 800m 능선에서 조선시대 지역유교문화와 관련된 금석문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13일 최초 제보자인 이종현 감사법무팀장과 장수군 화에서,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김병남 문화박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읍 장안리 일원에 자리한 장안산에서 길이 100m, 높이 10m 규모의 암벽에 새겨진 다수의 금석문을 확인했다.

발견된 금석문은 '장안산정(長安山亭)'과 관련된 것으로, 내용은 초입부 '군대동천(君待洞天)'을 시작으로 '장안산정'을 비롯한 기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등에 등록되지 않은 금석문과 건물지 추정지 초석 등 신규 유적이다.

장안산 금석문은 1927년 발행된 '장수지(長水誌)'에서 '장안산정'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돼 있으며 이번에 발견된 금석문은 그 이전부터 장수지역의 유교문화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추정된다.

최초 제보자 이종현 팀장은 "장수군 유교문화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 나왔다는 것에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장수군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호에 있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일 과장은 "이번 현지조사와 관련해 보



장수군 계남면 장안산 800m 능선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금석문.

물 제27호 '장수향교 대성전'과 함께 장수군 유교문화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유교문화를 기반으로 장수군의

충효예의의 얼을 세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내일 '임실 필봉농악' 즐기러

국립민속국악원 '판놀음' 4주차, 창작연희극 '히히냥락'

19일 박애리 '심청가' · 20일 조수항 '흥부가' 등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의 제2회 대한민족 판놀음의 4주차에서는 창작연희극 히히냥락과, 완창 판소리를 감상하는 소리판에서는 박애리의 심청가와 조수항의 흥부가 및 폐막 공연 명불허전을 만날 수 있다.

18일 저녁 7시에 만날 별별창극은 임실필봉농악보존회의 창작연희극 히히냥락인 풍물굿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필봉농악보존회가 제작한 상설공연이다.

19일 오후 3시 박애리의 심청가를 만나고, 20일 오후 3시에는 조수항의 흥부가가 펼쳐진다.

우리 고유의 판 문화를 무대로 옮겨와 오토, 자세한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로, 국악계 한 획을 그은 명인, 명창, 명무를 초청해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연주단과 함께 신명난 판을 펼쳐며 대망의 막을 내린다.

이날 공연에는 김무길 명인의 한강독 거문고산조, 강정숙 명인의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신영희 명창과 정화영 명고의 판소리 춘향가와 김영자·왕기석 명창이 선보이는 단막창극, 조흥동 명무의 한량무, 채상묵 명무의 승무를 이태백 명인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모든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객석 간 띄어앉기로 운영되어 예약은 필수이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투 기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1-5호 임실필봉농악보존회 창작연희극 '히히냥락'

'목요시네마 뮤즈' 와 함께

전북대 박물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 무료 영화상영 재개
영화 상영 횟수 주 2회로 늘려... 매회 인원수 30명으로 제한

전북대학교 박물관(관장 조대연)은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목요시네마 뮤즈'를 다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립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목요시네마 뮤즈'는 매주 목요일 지역민을 대상으로 무료영화를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를 통한 대학과 지역사회 간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진행하지 못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로 다시 재개된 무료영화 상영은 18일 첫 상영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날 수 있다.

그간 연 3,5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아온 만큼 영화 상영 횟수를 주 2회로 늘려 새롭게 문을 연다.

다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회 인원수가 30명으로 제한되며, 사전 신청 접수를 통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랜만에 지역민과 만나는 목요시네마 뮤즈는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영화로 구성됐다.

11월에는 고전 영화 '스팅'과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12월은 위로와 따뜻함이 함께 하는 영화들로 '싱스트리트', '8월의 크리스마스', '비지터', '내사랑', '위대한 쇼맨' 등이 상영 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박물관은 안전한 상영 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박물관 화예실(063-270-4088)로 접수 가능하며 사전 미 접수자는 참여할 수 없다.

/장은성 기자



문화도시 '익산을 말하다'

시·문화도시사업단, 시민 포럼

익산시와 문화도시사업단은 지난 13일 왕도미래유산센터(구 익옥수리조합)에서 '익산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민 포럼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일상 속에서 주체적으로 도시문제를 시민들이 해결해 나가는 도시문화를 만들며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이다.

포럼은 익산문화도시사업단 박현승 팀장의 사회로 시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익산희망연대 이진홍 사무국장), 도시재생과 함께하는 문화도시(중앙동 도시재생센터 관현석 센터장), 역사를 통한 문화적 일자리(익산사회적경제센터 임승필 선임연구원)라는 주제로 익산의 현황과 사례발표가 이뤄졌으며 시민토론도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시민들이 생각하는 익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도시 문제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도시가 겪고 있는 문제를 시민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치열한 논의까지 익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할만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포럼에 참석한 한 시민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게나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찾아보고 싶다"며 "시민들이 내가 사는 도시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욱 확대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선정과 함께 문화도시를 준비해왔으며 특히 올 한해 문화도시 가치 공유와 시민 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 기획강연과 토론회, 삼삼오오 이야기주간, 삼삼오오 우리동네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클래식 · 뮤지컬의 '콜라보'

27일 저녁 정음사예술회관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정음사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함께 우수작품 초청공연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오는 27일 오후 7시 정음사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

이번 무대는 클래식계의 베스트 뮤지션과, 뮤지컬계의 베스트 뮤지션이 함께하는 공연으로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질 계획이다.

1부는 지휘자 백은하가 이끄는 클라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젊은 감성 클래식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이뤄져 관객들에게 강렬한 에너지를 선사한다.

'정명훈과 7인의 음악인'으로 활약하며 클래식계의 이슈를 몰고 다니는 더블베이스스트 성민재가 이번 무대에서 음악감독과 베이시스트로 활약한다.

또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고 있는 이경선 바이올리니스트가 협연자로 등장한다.

2부에서는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 없는 최고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꾸며진다.

뮤지컬 '위키드'와 '아이다', '시카고' 등 대작들의 주역으로 활약하며 뮤지컬 디바로 전향한 아이비가 자신의 넘치는 에너지를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를 보여준다.

또한, TV 예능 펜텀싱어의 프로듀스를 맡으며 관객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킨 뮤지컬계의 황태자 마이클 리가 함께해 최정상급 뮤지컬 갈라 콘서트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두 배우 모두 각각 출연했던 뮤지컬의 넘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춘 듀엣곡도 선보일 예정이다.

티켓 예매는 17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1588-7890, www.ticketlink.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관람료는 전 좌석 2만원이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은 50% 할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정음SEE 검색)와 지역 케이발방송 녹화방송도 진행한다"며 "시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음=김대환 기자

군산대학교 박물관서 심경·최운 유화 2인전

군산대학교 박물관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군산지역 사람들을 위해 진행 중인 전시작가 공모전의 일환으로 심경·최운 유화 2인전을 개최한다.

이 작품전은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직원으로 만난 또래 2인이 유화 작업을 통해 인생 후반기의 우정을 나누는 따뜻한 전시이다.

심경 작가는 주로 시간과 공간의 기억으로부터 얻은 자연의 피사체를 반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최운 작가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류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얻은 영감을 유화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두 작가의 습작들을 모아 작업실을 재현해 놓은 포토존 '나도 유화 작가'가 마련돼 있다.

이 전시는 가을이 절이가는 대학 캠퍼스에서 서문여섯 점의 유화를 통해 낭만과 우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전시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자연의 신선함을 푸르밀

건강의 시작! 푸르밀로부터

푸르밀은 자연의 푸르름, 순수함, 신선함을 뜻하며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소비자 여러분께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인됨을 담았습니다.

푸르밀 컨설팅 허지연

문의처: 080-700-2001 / www.purmil.co.kr